

경제주평

■ 2025년 한국 경제 전망(수정)

- 2025년 경제성장률, 1.0%p 하향조정한 0.7%

목 차

■ 2025년 한국 경제 전망(수정)

- 2025년 경제성장률, 1.0%p 하향조정한 0.7%

Executive Summary	i
1. 대외 경제 환경 변화	1
2. 최근 한국 경제 경기 동향	8
3. 한국 경제 전망	16
4. 시사점	26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이부형 동향분석팀장 (2072-6306, leebuh@hri.co.kr)
이택근 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
신지영 연구위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시연 연구위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2025년 한국 경제 전망(수정)

- 2025년 경제성장률, 1.0%p 하향조정한 0.7%

■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의 배경

현대경제연구원은 '25년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지난 전망치 1.7%('24년 12월 전망 시점)에서 0.7%로 1.0%p 하향조정하였다. 하향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들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대외 불확실성(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의 파급 영향)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나아가 '24년 2분기부터 시작된 불황이 만 1년 동안이나 지속 중인 상황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가 동반 침체되는 '절대 수요 부족' 국면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 실적 악화 → 고용 시장 냉각 → 소비 침체 → 시장 수요 위축 → 기업 실적 악화」의 경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내수 부문은 고금리에 따르는 소비자 실질구매력의 정체와 성장과 고용에 대한 국민경제적 영향이 매우 높은 건설투자의 침체로, 민간 부문 스스로의 회복력이 거의 고갈된 상황이다. 과거의 경험상 한국 경제가 불황 국면에서 탈출하는 전형적인 경로는 수출 경기 호조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나, 올해 교역 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수출의 경제 성장 견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25년 한국 경제의 0%대의 초 저성장 국면 탈출은 불가능해 보이며, 긍정적 시나리오상 ① 교역 환경의 주목할만한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②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대응될 경우 1%대 초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 경제 수정 전망

① 경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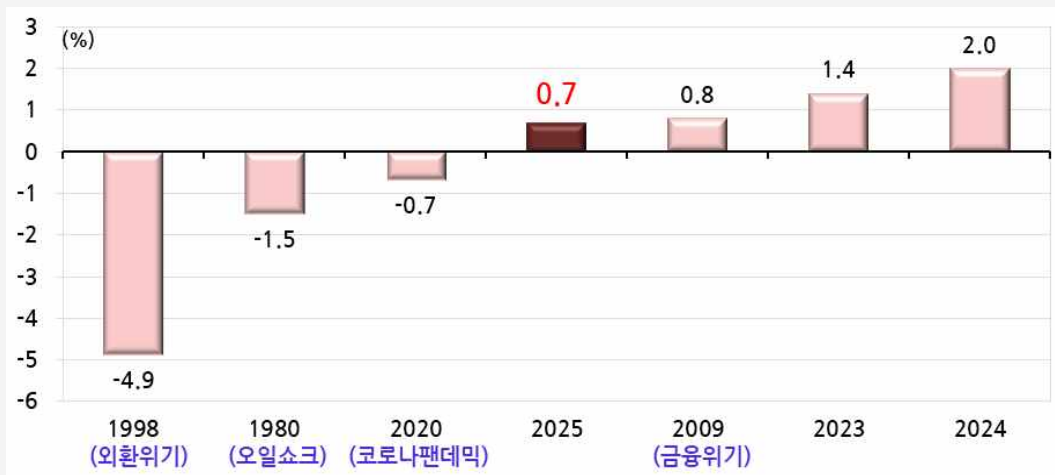
GDP증가율	2.0%	⇔	0.7%
	(2024)		(2025)

한국 경제는 '24년 내수 침체 속 수출 호조 국면에서 '25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모

두 침체되는 국면으로의 진입이 전망된다. '25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1% 미만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예상치 못한 대내외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특정 분기의 추가적인 역성장의 출현도 가능한 상황이다.

참고로 '60년 이후 66년 동안 낮은 순서대로 연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98년($\Delta 4.9\%$), '80년($\Delta 1.5\%$), '20년($\Delta 0.7\%$)에 이어 '25년(연구원 전망치 0.7%)이 네 번째에 해당된다.

< 1960년 이후 낮은 순서 기준 연간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특히, 수출과 내수가 뚜렷한 반동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서 민간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도 기대할 수 없어 장기불황 시대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25년 경제성장률은 '24년의 2.0%보다 크게 낮은 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5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 내외에 크게 못 미치는 0.7%로 예상되며, 기존 '24년 12월 전망치인 1.7%에서 1.0%p 하향조정된 것이다. 다만, '24년의 상고하자 영향으로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4%,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0.9%의 상저하조의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② 내수

민간소비증가율	1.1%	⇒	0.9%
	(2024)		(2025)

높은 물가 수준·고금리로 인한 실질구매력의 정체와 더불어,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소득 부진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계의 현재 경기 판단이나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CSI는 여전히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년 전반적인 소비 여건을 보면, 실물 경제 펀더멘트에 비해 높은

금리와 물가, 근로/사업소득의 정체 등으로 '24년에 비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민간의 자생적 소비 회복력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민간소비의 침체를 정부소비 확대로 보완하지 않는 이상 절대적인 시장 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5년 민간소비증가율은 '24년 1.1%에서 낮아진 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5년 민간소비의 추세는 하반기 불확실성의 완화 또는 민간 주체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 강화로, 상저하고의 모습일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0.6%, 하반기 1.2%로 예상된다.

설비투자증가율	1.6%	⇨	1.2%
	(2024)		(2025)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으로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디지털 전환 및 그린 전환 등 신산업 투자 수요 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심리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본 조달 비용의 급증, 자본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투자 여력도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통상 환경의 악화(관세 전쟁), 해외시장 불확실성(미국 경기 하강, 중국 회복 지연) 등에 따른 글로벌 시장의 수요 침체로 제조업의 생산 설비 확대 동기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DT(AI, 데이터센터), GT(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의 신산업 투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5년 설비투자증가율은 '24년의 1.6%보다 낮아진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증가율은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4.0%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들어 역(逆)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증가율	△3.0%	⇨	△6.1%
	(2024)		(2025)

건설수주 침체의 장기화가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시장 여건이 다소 개선되면서 투자가 미약한 반동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문별로 보면 토목 SOC 분야의 경우 '25년 정부 예산에서의 재정투자 규모가 25.4조 원으로 '24년 26.4조 원 대비 3.8% 감소하였다. 특히, 건설투자의 약 75%를 차지하는 건축·건물건설 분야의 경우, 공급 측면에서 고물가에 따른 공사비와 고금리로 인한 금융조달비용이 급등한 상황이고, 수요 측면에서도 경제적·제도적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건축·건물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및 착공 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향후 업황 불황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25년 건설투자증가율은 '24년의 △3.0%에 이어 △6.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감소세를 지속할 것이나,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③ 대외 거래

수출증가율	8.1%	⇒	△4.0%
	(2024)		(2025)

수출증가율은 '24년 8.1%에서 '25년 △4.0%의 감소세로의 전환이 전망된다. 상·하반기별로도 연중 내내 감소세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며,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출 산업일수록 실적의 부침이 상대적으로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 협상의 결과와 미·중 간 관세 전쟁의 향방에 따라, 하반기 수출 경기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증가율	△1.7%	⇒	△0.5%
	(2024)		(2025)

수입증가율은 '24년 △1.7%에서 '25년 △0.5%의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2.0%, 하반기 1.0%로 예상된다. 내수 침체로 수입재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면서 상반기에는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 들어 다소의 경기 반등과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역수지	518억 달러	⇒	276억 달러
	(2024)		(2025)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출 감소 폭이 수입 감소 폭보다 커, 무역수지 흑자는 '24년 518억 달러에서 '25년 276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25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14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수입이 다소 증가하면서 128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하반기에 수출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예상치를 상회할 수도 있다.

경상수지	990억 달러	⇒	490억 달러
	(2024)		(2025)

경상수지는 '24년 990억 달러에서 '25년 490억 달러로 크게 낮아질 것이다. '25년 상반기 경상수지는 2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그보다 낮은 230억 달러가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감소는 주로 재화 교역에서 상품수지(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하는 영향 때문이다.

④ 물가 및 고용

소비자물가상승률	2.3%	⇒	1.7%
	(2024)		(2025)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의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글로벌 시장 수요 하락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의 완화가 기대된다. 한편, 수입물가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인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0%대의 극심한 침체 국면이 이어지면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가 약화되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주요 원자재 수출 지역에서의 전쟁, 수출 규제 확산 등의 예기치 못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4년 2.3%에서 '25년 1.7%로 낮아질 전망이다. '25년 상반기에는 2% 내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 들어 1%대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

실업률	2.8%	⇒	3.3%
	(2024)		(2025)

실업률은 '24년 2.8%에서 '25년 3.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실업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불황 국면에서 기업들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구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층 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취업자수증감	16만명	⇒	15만명
	(2024)		(2025)

신규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증감)는 '24년 16만 명에서 '25년 15만 명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16만 명, 하반기에는 14만 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취업자수의 감소 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최근의 고용 시장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의 고임금자가 서비스업 내 저임금 업종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신규 일자리 숫자 자체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

한국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성장률 0%대의 경제 위기 국면 탈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상 네 번째의 성장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기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둘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 양상 및 주요국과의 협상 프로세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국익 최대화를 위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통상전략 전반의 재점검 및 보완책 마련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및 수출 경쟁력 유지를 꾀해야 한다. **셋째**, 정책 이니셔티브 발현을 통해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한 고용 및 소득 확충을 유도하는 한편, 이것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넷째**, 경기 침체기와 미래 불확실성 고조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적절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여 사회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섯째**,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경제·사회의 역동성 복원 노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5년 한국 경제 전망표 (2025년 4월) >

구 분		2023	2024			2025(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1.4	2.8	1.3	2.0	0.4	0.9	0.7
	민간소비 (%)	1.8	1.0	1.3	1.1	0.6	1.2	0.9
	건설투자 (%)	1.5	0.4	△6.1	△3.0	△10.0	△2.0	△6.1
	설비투자 (%)	1.1	△1.8	5.1	1.6	4.0	△1.5	1.2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355	402	589	990	260	230	490
	무역수지 (억 달러)	△103	230	289	518	148	128	276
	수출증가율 (%)	△7.5	9.1	7.2	8.1	△4.3	△3.7	△4.0
	수입증가율 (%)	△12.1	△6.4	3.4	△1.7	△2.0	1.0	△0.5
소비자물가상승률 (%)		3.6	2.8	1.8	2.3	2.0	1.5	1.7
실업률 (%)		2.7	3.1	2.5	2.8	3.3	3.4	3.3
취업자수 증감 (만 명)		33	22	10	16	16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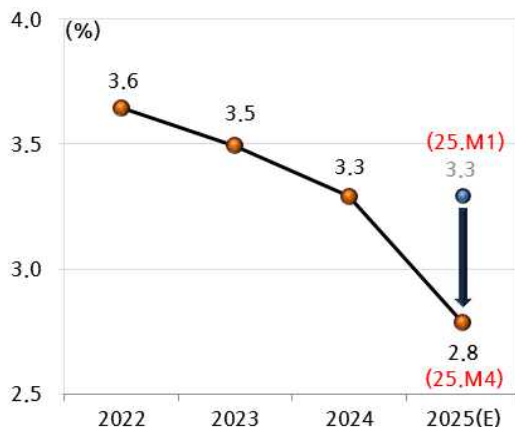
1. 대외 경제 환경 변화

① 세계 경제 전망

○ (세계 경제)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과 교역 환경의 악화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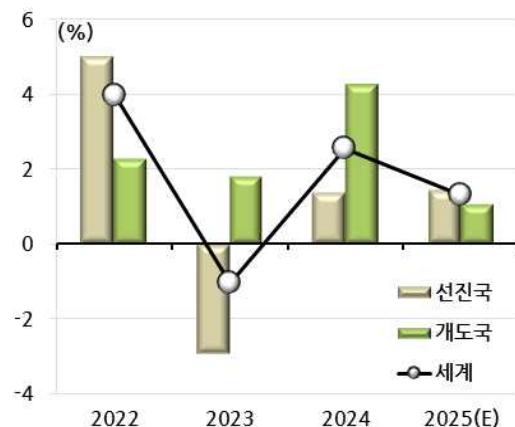
- '25년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는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로 '24년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교역증가율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
 - IMF 4월 전망에 따르면 '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8%로 '24년의 3.3%에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25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 3.3%에서 0.5%p 하향조정한 것임
- 한편, '25년 국제교역 환경은 트럼프 통상정책의 영향으로 크게 악화되면서 글로벌 교역 증가율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수입 수요가 정체되는 가운데, 신흥국 및 개도도상국 수입 수요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세계 교역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IMF 4월 전망 통계 기준으로 상품 교역증가율은 '24년 2.5%에서 '25년 1.3%로 하락할 전망임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5).

< 국제 교역(상품) 증가율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5).

○ (선진국) 미국 경제의 경기 하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로존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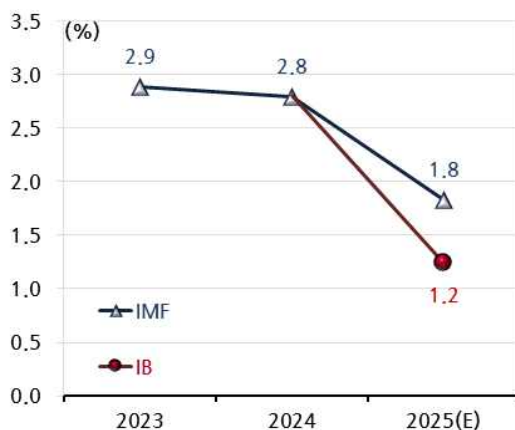
-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 발 경기 둔화 또는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IMF는 최근 '25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4년 2.8%보다 크게 낮은 1.8%로 예측하였는데, 주요 IB 전망치는 평균 1.2%로 더 부정적인 시각을 보임
- 한편, 최근 주요 기관들의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확정하는 관세 인상 정책의 강도에 달려 있다고 판단됨

- (유로존)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관세 전쟁의 격화로 0%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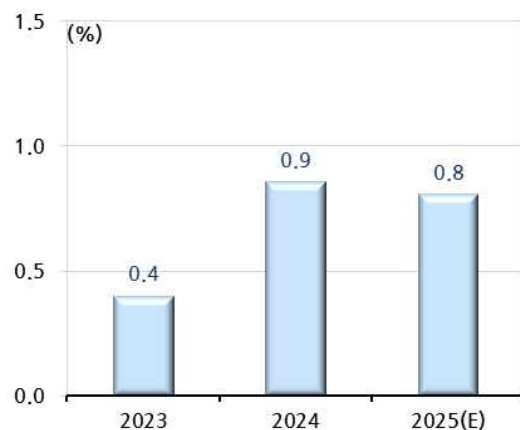
- '25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4년 수준 0.9%과 비슷한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역내 주요 경제권인 독일 0.0%, 프랑스 0.6%, 이탈리아 0.4%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독일의 대규모 재정 부양책에 따른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 완화, 인프라 투자를 위한 5,000억 유로의 기금 신설 등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발표한 점과 유로존 내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스페인이 양호한 경제흐름 성장률 2.5%를 보이는 점은 경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5), Bloomberg¹⁾.

< 유로존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5).

1) IB는 JP Morgan, Morgan Stanley, Fitch 3사 평균 전망치.

○ (신흥시장 및 개도국) '25년 전반적인 신흥시장 경제 상황은 '24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각국의 내수 경제가 미국 관세 정책의 악영향을 상쇄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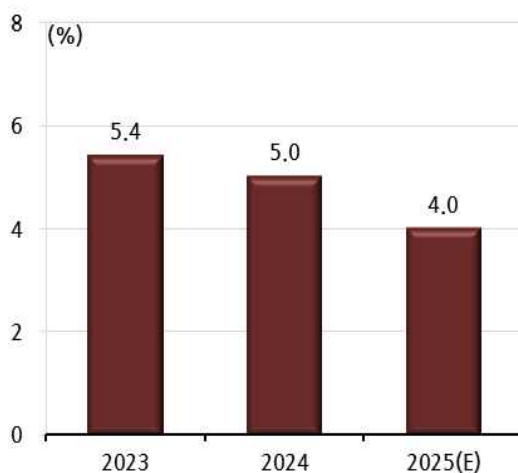
- (중국) 외수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책 규모에 따라 경제 성장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 재정 적자율 목표 GDP 대비 4% 상향, 소비 진작 특별행동 방안 추진 등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부양책이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을 일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됨
- 단, 주택 시장 침체,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등은 여전히 내수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 목표치 5% 달성 가능성은 불확실함

- (인도) 우호적이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 소비가 확대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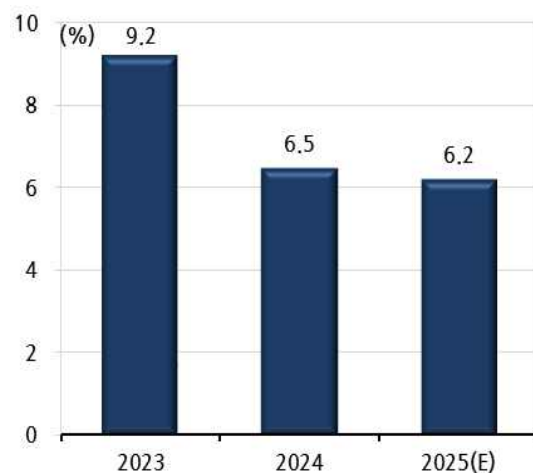
-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에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되며 다른 경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기반 투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및 세제 개편 등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인도 정부는 6%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함

<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5).

< 인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5).

- (ASEAN) 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으로 인한 타격이 큰 지역 중 하나로 뚜렷한 성장 둔화세를 보일 전망

- 미국은 ASEAN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태국 36% 등 주요 ASEAN 국가에 적용된 상호관세율은 ASEAN의 전반적인 수출 경기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중국과의 경제 및 공급망 협력 수준이 높다는 점,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한 중국산 제품이 역내로 유입되며 자국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도 경기 둔화세를 심화시키는 요인임
- 한편, 물가 안정세, 관광 산업의 회복세 등은 경기 하방 압력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 IMF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

구 분		2022	2023	2024	2025(E)
세계 경제성장률		3.6	3.5	3.3	2.8
	선진국	2.9	1.7	1.8	1.4
	미 국	2.5	2.9	2.8	1.8
	유로지역	3.5	0.4	0.9	0.8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4.1	4.7	4.3	3.7
	아시아신흥국	4.7	6.1	5.3	4.5
	중 국	3.1	5.4	5.0	4.0
	인 도	7.6	9.2	6.5	6.2
	ASEAN5	5.5	4.1	4.6	4.0
	중남미	4.2	2.4	2.4	2.0
	중동 및 중앙아시아	5.5	2.2	2.4	3.0
	동유럽	0.5	3.6	3.4	2.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1	3.6	4.0	3.8
세계 교역량증가율		5.7	1.0	3.8	1.7

자료: IMF WEO(April,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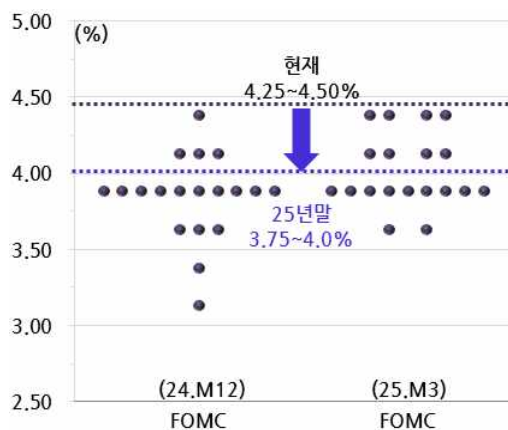
② 주요 가격 변수 동향과 전망

○ (금리) 미 FED의 금리 인하 시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이에 따라 다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가능성 상존

- 최근 미 FED는 관세 인상애 따른 물가 불안을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나, 미국 실물 경제의 침체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

- 이미 빠른 금리 인하에 나선 ECB의 경우 추가적인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BOJ는 완만한 인상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경화 硬貨, hard currency국이 아닌 한국의 입장에서는 환율 불안 이슈로 BOK의 금리 인하 속도를 FED에 맞추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판단됨

< FED-FOMC 점도표 >



자료: FOMC(December 2024 & March 2025).

< IB의 주요국 정책금리 전망 >

	2024	2025(E)			
	Q4	Q1	Q2	Q3	Q4
FED (%)	4.50	4.50	4.50	4.25	4.00
BOJ (%)	0.25	0.50	0.50	0.75	0.75
ECB (%)	3.15	2.65	2.15	2.15	2.15
BOK (%)	3.00	2.75	2.50	2.25	2.25

자료: Bloomberg.

○ (환율) 달러화 가치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하반기로 갈수록 원화 약세가 완화할 것으로 기대

- 글로벌 달러화 약세 전환으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달러화 가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인상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美 경기둔화 우려, 금리 인하 등으로 약세가 전망됨

- ※ 달러인덱스(IB, 4월): 106.7('25.Q1) → 103.0(Q2) → 102.0(Q3) → 100.9(Q4)
- 원화는 달러화 약세 전환이 전망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약세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 단, 내·외수 경기 동시 악화로 인한 펀더멘털 우려 지속, 원화와 동조성이 높은 위안화 약세 지속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4분기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초중반 수준으로, 하락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최근 원/달러 환율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IB 주요 환율 전망 >

	2024	2025(E)			
	Q4	Q1	Q2	Q3	Q4
달러/유로	1.04	1.08	1.09	1.10	1.11
엔/달러	157	150	146	144	142
위안/달러	7.30	7.26	7.35	7.35	7.35
원/달러	1,479	1,474	1,463	1,455	1,440

자료: Bloomberg.

○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25년 국제 유가는 '24년 대비 하락세가 전망되며, 국제 원자재 가격은 부문별 차별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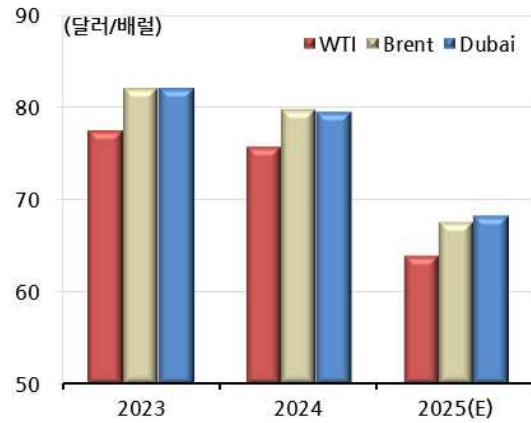
- 국제 유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확대에 배럴당 60달러대 후반대 수준 전망
 - 미국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고율의 관세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세계 수요 둔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수요측 하방 압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공급 측면에서도 OPEC+가 4월부터 감산을 완화하며 하방 압력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보상 감산 계획 생산 쿼터 초과 생산 국가에 대한 추가 감산 조치가 발표되면서 향후 실질적인 공급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존함
 - 한편, 달러화 약세, 미국의 對이란 제재 강화, 지정학 리스크 지속 등 상방 요인의 혼재로 큰 폭의 하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주요국 원유 소비량
(2023년, 1,000배럴/일) >

순위	국가	소비량	점유율
	World	100,221	100.0%
1	US	18,984	18.9%
2	China	16,577	16.5%
3	India	5,446	5.4%
4	Saudi	4,052	4.0%
5	Russia	3,635	3.6%
6	Japan	3,366	3.4%
7	Korea	2,797	2.8%
8	Brazil	2,567	2.6%
9	Canada	2,351	2.3%
10	Mexico	1,962	2.0%

자료: British Petrol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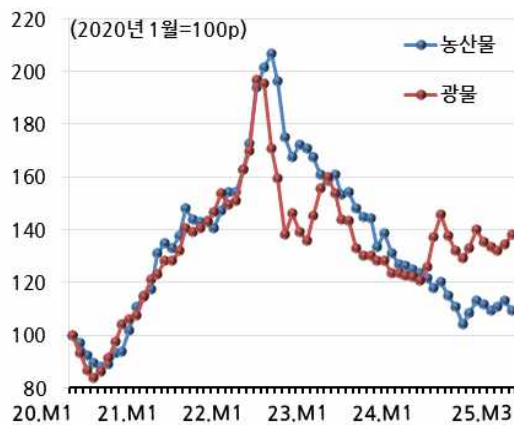
< 국제 유가 전망 >



자료: Bloomberg.

- 글로벌 시장 수요 둔화 우려로 에너지 및 광물 등 상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상 기후로 음식료·농산물 등의 가격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美 관세정책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 둔화가 전망됨에 따라 원유 등 에너지와 구리 등 광물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작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음식료·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관세정책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세계 수요와 원자재 가격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교역 환경 악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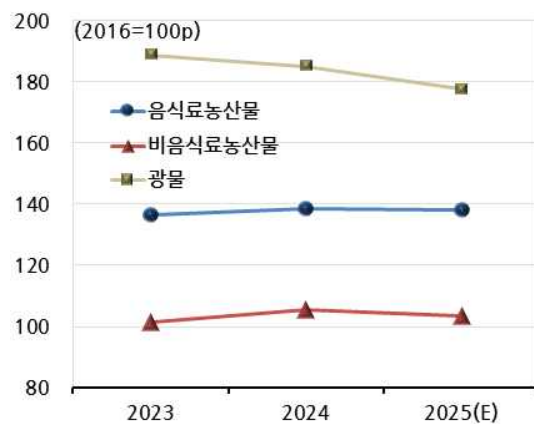
< 농산물 및 광물 원자재 가격 지수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를 이
용한 지수화.

< 항목별 원자재 가격 지수 전망 >



자료: IMF WEO(April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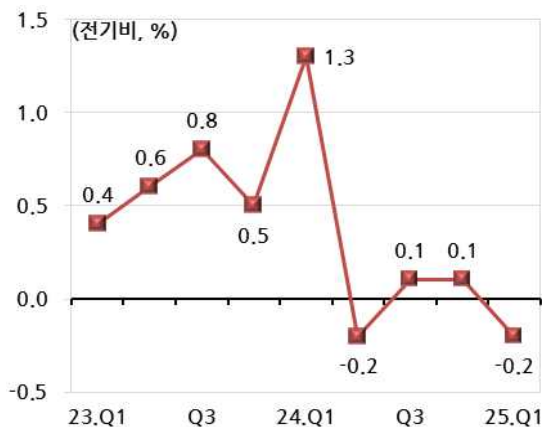
2. 최근 한국 경제 경기 동향

① 경기(경제성장률)

○ (역성장 현실화) 한국 경제는 1분기 현재 경기지수 상 반등하는 모습이나, 내수와 수출이 모두 크게 침체되면서 경기 회복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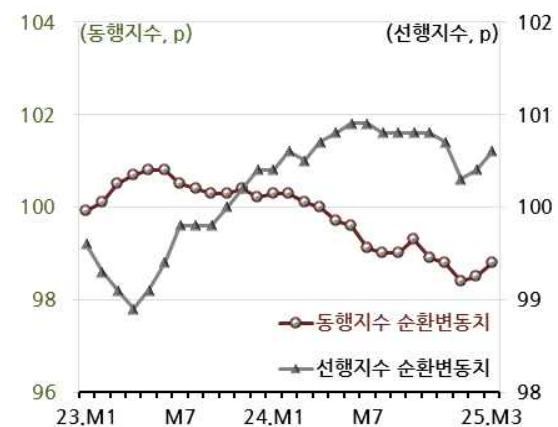
- '25년 1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는 전기비 $\Delta 0.2\%$, 전년동기대비로도 $\Delta 0.1\%$ 의 역(逆)성장을 기록
 - 한편, '25년 1분기에 민간소비 전기비 $\Delta 0.1\%$, 설비투자 $\Delta 2.1\%$, 건설투자 $\Delta 3.2\%$, 수출 $\Delta 1.1\%$ 등 모든 수요 부문이 감소세를 기록함
- 다만, 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1분기 경기 저점 형성의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3월 현재 98.8p로 1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 중임
 -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24년 12월 98.8p, '25년 1월 98.4p, 2월 98.5p, 3월 98.8p
 - 또한,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3월 현재 100.6p로 1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감
 -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24년 12월 100.7p, '25년 1월 100.3p, 2월 100.4p, 3월 100.6p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② 내수

○ (민간소비) 가계 심리 냉각과 실질 구매력 약화에 따른 전방위적인 소비 침체가 장기화

- 재화 중심의 소비 지표인 3월 소매판매는 전월비로는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증가

·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율은 2월 1.9%의 증가세에서 3월에 $\Delta 0.3\%$ 의 감소세로 전환됨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MoM): '24년 11월 $\Delta 0.7\%$, 12월 0.5% , '25년 1월 $\Delta 0.6\%$, 2월 1.9% , 3월 $\Delta 0.3\%$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4년 11월 $\Delta 2.6\%$, 12월 $\Delta 2.1\%$, '25년 1월 0.2% , 2월 $\Delta 1.8\%$, 3월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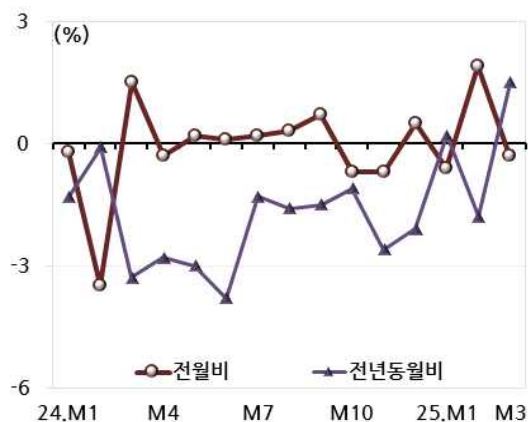
- 소비 항목별로 1년 전에 비해 준내구재가 감소하였으나, 내구재와 비내구재는 증가세를 기록

· 3월 중 내구재 소비는 전년동월비 1.3% 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비내구재도 소비도 0.6% 의 증가세를 기록함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4년 11월 $\Delta 6.2\%$, 12월 $\Delta 6.6\%$, '25년 1월 $\Delta 8.9\%$, 2월 14.1% , 3월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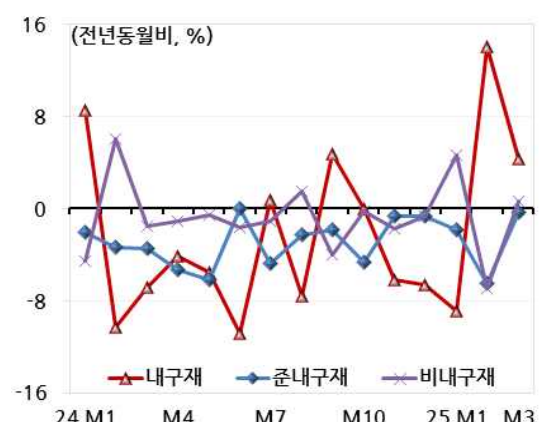
※ 비내구재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4년 11월 $\Delta 1.7\%$, 12월 $\Delta 0.7\%$, '25년 1월 4.6% , 2월 $\Delta 6.9\%$, 3월 0.6%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설비투자)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급증, 내외수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침체가 지속

- 3월 설비투자는 주력 부문인 ICT 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설비투자의 침체를 유발

- 3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2월 전월비 21.3%의 증가세에서 $\Delta 0.9\%$ 의 감소세로 전환됨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MoM): '24년 11월 $\Delta 1.7\%$, 12월 7.2%, '25년 1월 $\Delta 17.2\%$, 2월 21.3%, 3월 $\Delta 0.9\%$

- 특히, 설비투자의 핵심인 3월 ICT투자가 전월비 기준으로 $\Delta 7.9\%$ 의 감소세를 기록함

※ ICT설비투자지수 증가율(MoM): '24년 11월 $\Delta 0.4\%$, 12월 4.0%, '25년 1월 $\Delta 8.0\%$, 2월 6.7%, 3월 $\Delta 7.9\%$

-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증가율과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은 올해 들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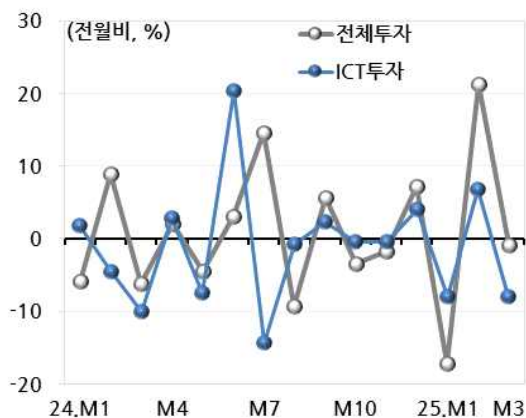
- 자본재수입액은 최근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증가율 상승세가 지속 중임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1월 0.5%, 2월 10.9%, 3월 25.2%

-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도 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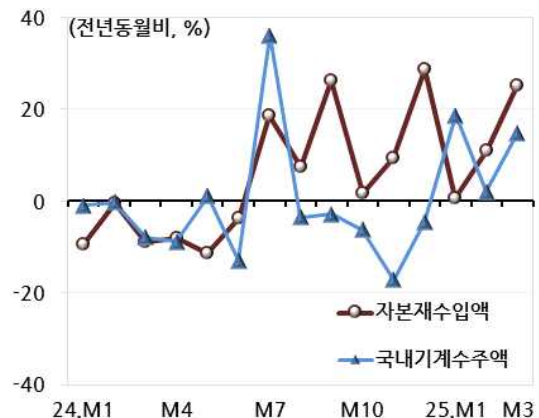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²⁾: 1월 18.6%, 2월 2.0%, 3월 14.8%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2) 국내기계수주액(선박·선박용내연기관제외)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

○ (건설투자)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과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모두 감소세를 시현

-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민간 부문이 크게 침체되어 감소세를 기록

- 3월 건설기성액 증가율 전년동월비는 14.0%로 '24년 5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임

※ 건설기성 증가율(YoY): '24년 11월 $\Delta 11.3\%$, 12월 $\Delta 6.2\%$, '25년 1월 $\Delta 26.7\%$, 2월 $\Delta 19.5\%$, 3월 $\Delta 14.0\%$

- 공공 부문이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민간 부문은 감소세를 지속함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24년 11월 1.2%, 12월 $\Delta 2.7\%$, '25년 1월 $\Delta 8.2\%$, 2월 $\Delta 11.0\%$, 3월 0.7%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24년 11월 $\Delta 13.8\%$, 12월 $\Delta 6.0\%$, '25년 1월 $\Delta 29.5\%$, 2월 $\Delta 21.3\%$, 3월 $\Delta 17.5\%$

-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액 선행지표는 3월에 들어 민간 부문이 소폭 반등하였으나 공공 부문이 큰 폭으로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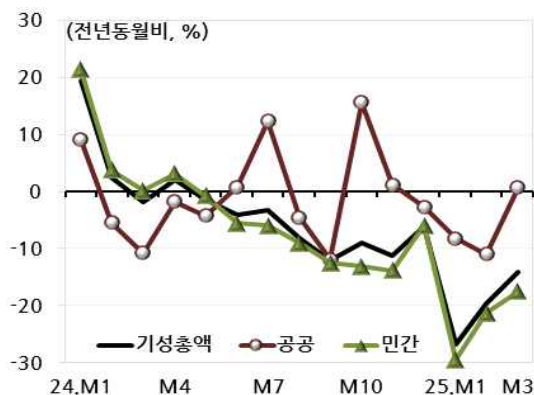
- 건설수주증가율은 2월 전년동월비 1.8%의 증가세에서 3월에 $\Delta 8.7\%$ 의 감소세로 전환됨

※ 건설수주 증가율(YoY): '24년 11월 67.9%, 12월 $\Delta 12.5\%$, '25년 1월 $\Delta 15.5\%$, 2월 1.8%, 3월 $\Delta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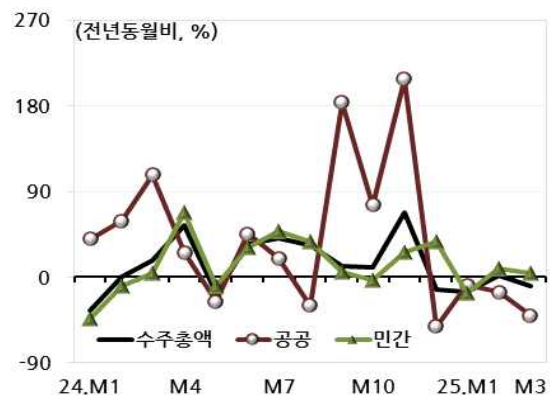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24년 11월 207.7%, 12월 $\Delta 51.9\%$, '25년 1월 $\Delta 8.5\%$, 2월 $\Delta 15.6\%$, 3월 $\Delta 39.9\%$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24년 11월 25.8%, 12월 37.8%, '25년 1월 $\Delta 17.1\%$, 2월 8.7%, 3월 3.9%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 증가율 >



<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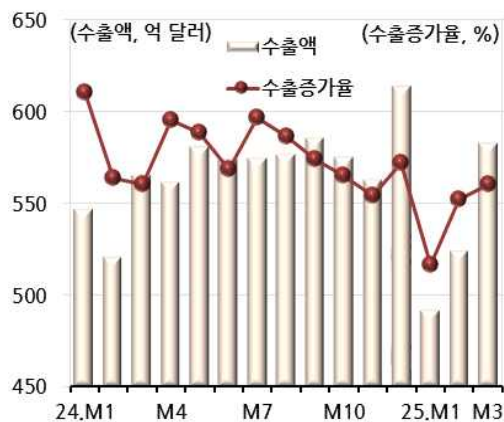


③ 대외 거래

○ (수출입) 수출 경기가 약화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수입 물량은 감소세를 기록

- 올해 들어 수출 경기 둔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비록 2월과 3월 수출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2월과 3월 수출증가율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0.7% 및 3.1%로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나, 1월 $\Delta 10.1\%$ 까지 고려한 1분기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Delta 2.1\%$ 의 감소세를 보임
 - ※ 수출액 증가율: '24년 12월 6.6%, '25년 1월 $\Delta 10.1\%$, 2월 0.7%, 3월 3.1%
 - 한편, 3월 통계 기준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미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관세 인상 조치를 앞둔 기업들의 선제적 수출 물량 확대 전략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됨
- 3월 수입증가율은 소폭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나, 내수 부진으로 국내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량 기준으로는 감소세를 기록
 - 3월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하였으나, 수입물량은 전년동월대비 $\Delta 5.2\%$ 의 감소세를 기록함
 - ※ 수입액 증가율: '24년 12월 3.3%, '25년 1월 $\Delta 6.4\%$, 2월 0.2%, 3월 2.3%
 - 수입물량은 '24년 11월 이후 '25년 3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중임

< 월별 수출증가율 >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월별 수입증가율 >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으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축소

- (무역수지) 수출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

- 1년 전에 비해 수입이 소폭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수출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 흑자 규모는 축소되는 모습임

- 무역수지는 '23년 6월 이후 '25년 3월 '25년 1월 제외까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1~3월 누계 흑자 규모는 약 73억 달러 월평균 약 24억 달러임

※ 무역수지: '24년 12월 65억 달러, '25년 1월 △18억 달러, 2월 42억 달러, 3월 50억 달러

- (경상수지) 서비스수지의 적자에도 무역수지 상품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는 흑자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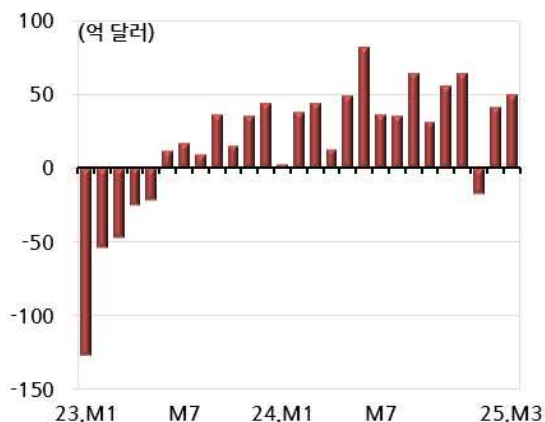
- 경상수지는 '23년 5월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 월평균 약 50.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경상수지: '24년 12월 123.7억 달러, '25년 1월 29.4억 달러, 2월 71.8억 달러

- 다만, '25년 1~2월 현재 서비스수지 적자의 약 59%를 차지하는 여행수지 적자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전체 서비스수지는 적자가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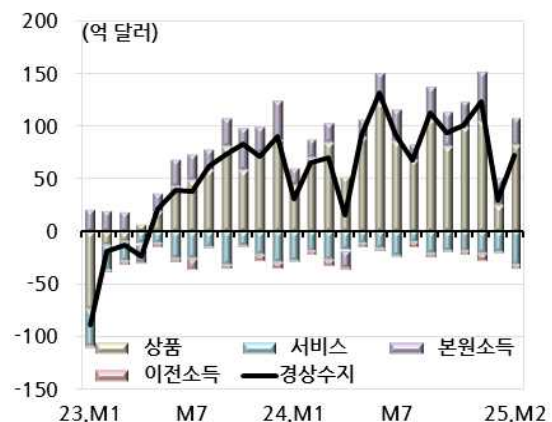
※ 서비스수지: '24년 12월 △21.1억 달러, '25년 1월 △20.6억 달러, 2월 △32.1억 달러

< 월간 무역수지 추이 >



자료: 관세청.

< 월간 경상수지 추이 >



자료: 한국은행.

④ 물가 및 고용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의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에 들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

- 최근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

- 3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고환율로 인한 상승 압력이 있으나,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2월 전년동월대비 4.3%에서 3월에 3.4%로 하락함

※ 수입물가상승률(YoY): '24년 12월 6.8%, '25년 1월 6.5%, 2월 4.3%, 3월 3.4%

- 3월 생산자물가상승률은 공산품 물가 상승 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농림수산물 물가가 하락하면서 2월 전년동월비 1.5%에서 3월에 1.3% 하락함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24년 12월 1.7%, '25년 1월 1.8%, 2월 1.5%, 3월 1.3%

- 소비자물가가 2%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며 근원물가도 비교적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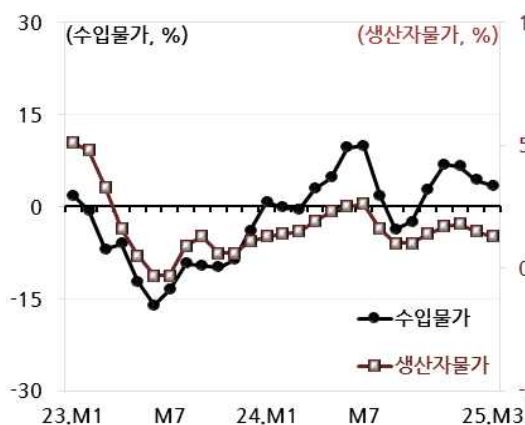
-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축수산물 전년동월대비 0.9%와 공업제품 1.7%이 안정되었으나, 서비스 2.3% 상승률이 다소 높아 2월에 이어 2%대를 유지함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24년 12월 1.9%, '25년 1월 2.2%, 2월 2.0%, 3월 2.1%

- 일시적 변동 요인을 제외한 3월 근원물가상승률은 1.9%로 2월보다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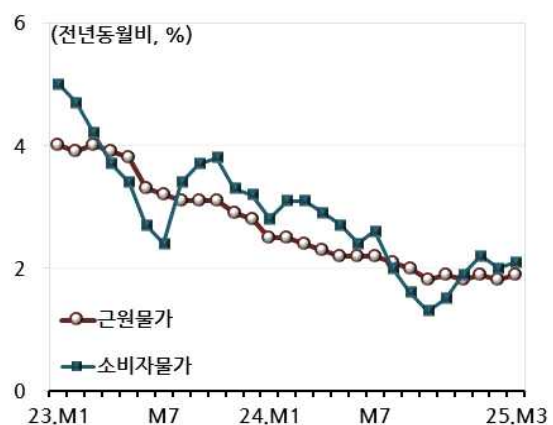
※ 근원물가상승률(YoY): '24년 12월 1.8%, '25년 1월 1.9%, 2월 1.8%, 3월 1.9%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동월비 기준.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



자료: 통계청.
주: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기준.

○ (고용) 실업률이 다소 높아지는 가운데, 제조업 및 건설업 그리고 주력 경제 활동 연령대의 고용창출력이 급감

- 3월 실업률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구직단념자는 감소

- 3월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 '24년 3월 3.0%보다 악화되었으며, 비경제활동 인구 중 구직단념자³⁾는 '24년 3월 39.1만 명에서 '25년 3월 35.4만 명으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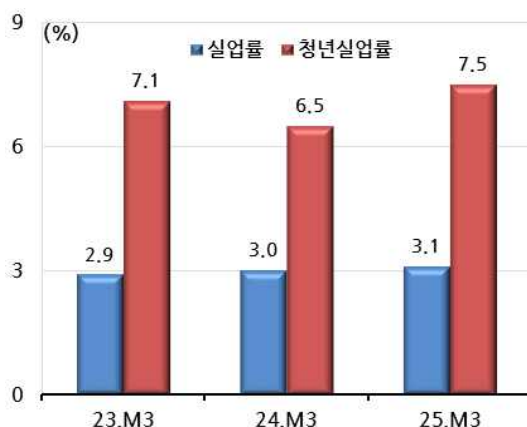
- 3월 신규취업자 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비 19.3만 명으로 2월의 13.6만 명보다 증가하였는데,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창출력이 급감하는 모습

- 3월 중 취업자 수 증감분 전년동월비는 19.3만 명으로 2월 13.6만 명보다 소폭 확대됨

※ 취업자 수 증감(YoY): '24년 12월 △5.2만 명, '25년 1월 13.5만 명, 2월 13.6만 명, 3월 19.3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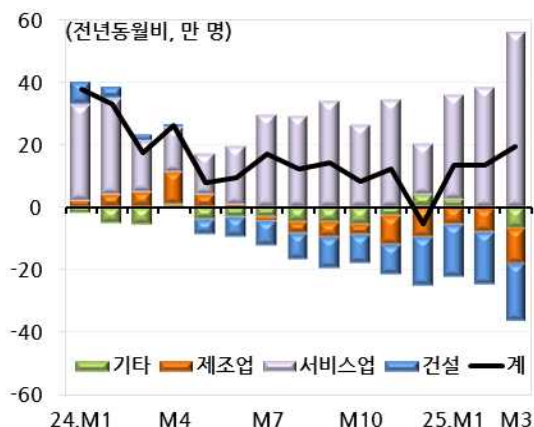
- 3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전년동월비는 제조업 △11.2만 명, 건설업 △18.5만 명, 서비스업 55.8만 명임
- 다만, 3월 취업자수 증가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주도 전년동월비 36.5만 명하고 있으며,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축소△20.6만 명 됨

< 3월 기준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별⁴⁾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3)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중 구직단념자는 취업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정한 사유로 이전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 1년 안에 구직경험이 있는 자를 의미.

4) 기타는 광업, 유틸리티,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합계.

3. 한국 경제 전망

○ 수정 전망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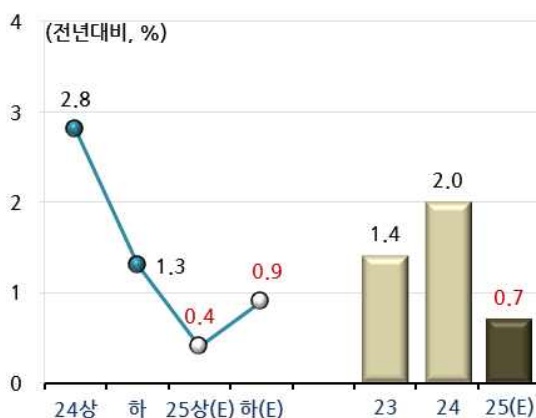
- 현대경제연구원은 '25년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지난 전망치 1.7% '24년 12월 전망 시점에서 **0.7%로 1.0%p 하향조정**
 - 하향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들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임
 - 또한, 향후 대외 불확실성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됨
 - 나아가 '24년 2분기부터 시작된 불황이 만 1년 동안이나 지속 중인 상황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됨
- 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가 동반 침체되는 「절대 수요 부족」 국면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 실적 악화 → 고용 시장 냉각 → 소비 침체 → 시장 수요 위축 → 기업 실적 악화」의 경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우려
 - 내수 부문은 고금리에 따르는 소비자 실질구매력의 정체와 성장과 고용에 대한 국민경제적 영향이 매우 높은 건설투자의 침체로, 민간 부문 스스로의 회복력이 거의 고갈된 상황임
 - 과거의 경험상 한국 경제가 불황 국면에서 탈출하는 전형적인 경로는 수출 경기 호조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나, 올해 교역 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수출의 경제 성장 견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2025년 한국 경제의 0%대의 초 저성장 국면 탈출은 불가능해 보이며, 매우 긍정적 시나리오상 ① 교역 환경의 주목할만한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②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대응될 경우 1%대 초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

① 경제 성장

GDP증가율	2.0%	⇒	0.7%
	(2024)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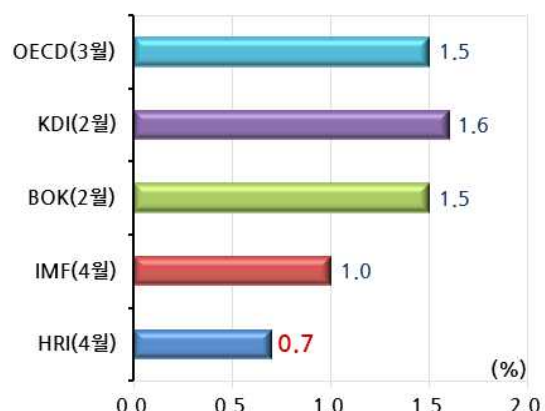
- 한국 경제는 '24년 내수 침체 속 수출 호조 국면에서 '25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침체되는 국면으로 진입
 - '25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1% 미만의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예상치 못한 대내외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특정 분기의 추가적인 역성장 출현도 가능한 상황임
 - ※ '6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1% 미만에 머물렀던 시기는 '80년($\Delta 1.5\%$), '98년($\Delta 4.9\%$), '09년(0.8%), '20년($\Delta 0.7\%$)의 네 번에 불과함
 - 특히, 수출과 내수가 뚜렷한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서 민간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도 기대할 수 없어 장기불황 시대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25년 경제성장률은 '24년 2.0%보다 크게 낮은 0.7%를 기록할 전망
 - '25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 2% 내외에 크게 못 미치는 0.7%로 예상되며, 기존 전망치 '24년 12월 전망 1.7%에서 1.0%p 하향조정함
 - 다만, '24년의 상고하저의 영향으로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4%,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0.9%의 상저하고의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 주요 기관의 2025년 성장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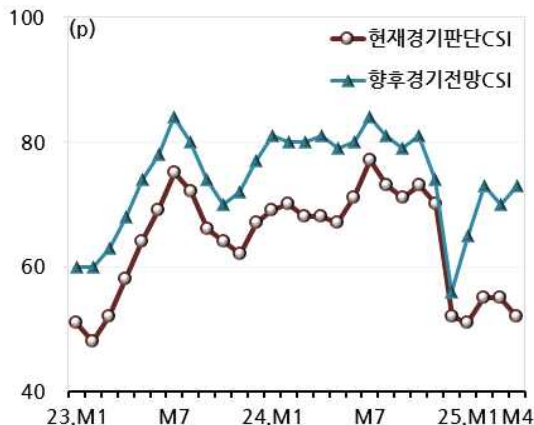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② 내수

민간소비증가율	1.1%	⇨	0.9%
	(2024)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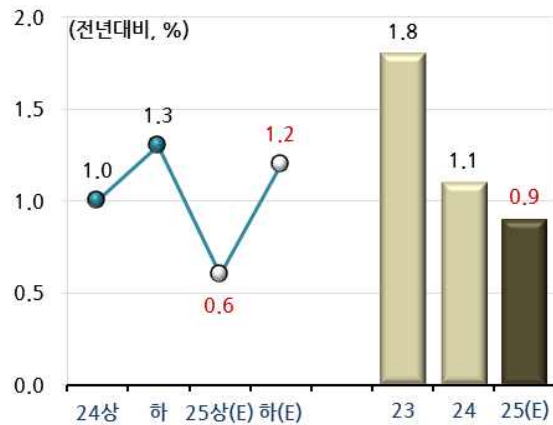
- 높은 물가 수준·고금리로 인한 실질구매력의 정체와 더불어,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소득 부진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
 - 가계의 현재 경기 판단이나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CSI는 여전히 정체되는 모습을 보임
 - '25년 전반적인 소비 여건을 보면, 실물 경제 펀더멘틀에 비해 높은 물가와 금리, 근로/사업소득의 정체 등으로 '24년에 비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즉, 민간의 자생적 소비 회복력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민간소비의 침체를 정부소비 확대로 보완하지 않는 이상 절대적인 시장 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25년 민간소비증가율은 '24년 1.1%에서 낮아진 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다만, '25년 민간소비의 추세는 하반기 불확실성의 완화 또는 민간 주체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 강화로, 상저하고의 모습일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0.6%, 하반기 1.2%로 예상됨

<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 >



자료: 한국은행.

< 민간소비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설비투자증가율	1.6%	⇒	1.2%
	(2024)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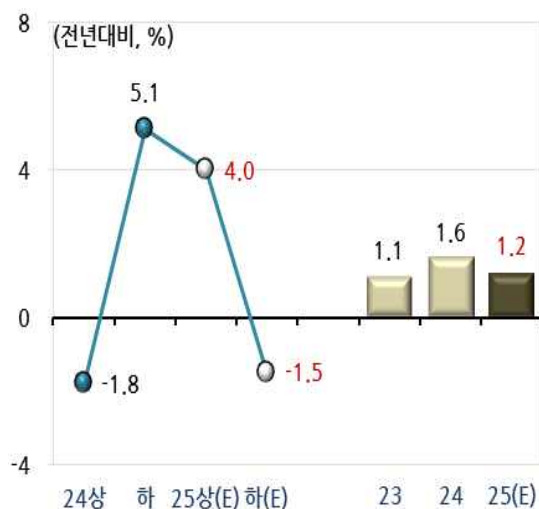
-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으로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디지털 전환 및 그린 전환 등 신산업 투자 수요 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기업 심리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본 조달 비용의 급증, 자본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투자 여력도 취약한 상황임
 - 특히, 통상 환경의 악화 관세 전쟁, 해외시장 불확실성 미국 경기 하강, 중국 회복 지연 등 글로벌 시장의 수요 침체로 제조업의 생산 설비 확대 동기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DT AI, 데이터센터, GT 신재생에너지인프라 등의 신산업 투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5년 설비투자증가율은 '24년 1.6%보다 낮아진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증가율은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4.0%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들어 역(逆)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한국은행, 한국경제인협회.

< 설비투자증가율 추이 및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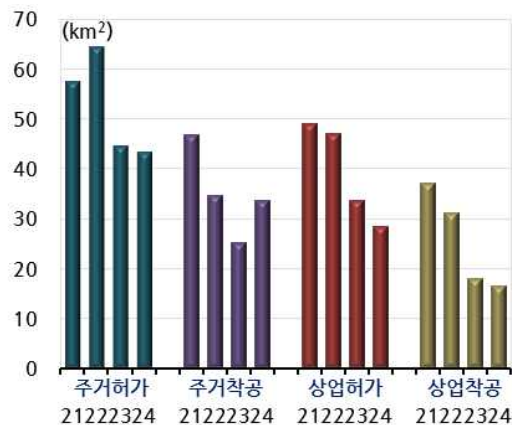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건설투자증가율 $\Delta 3.0\%$ \Rightarrow $\Delta 6.1\%$
(2024)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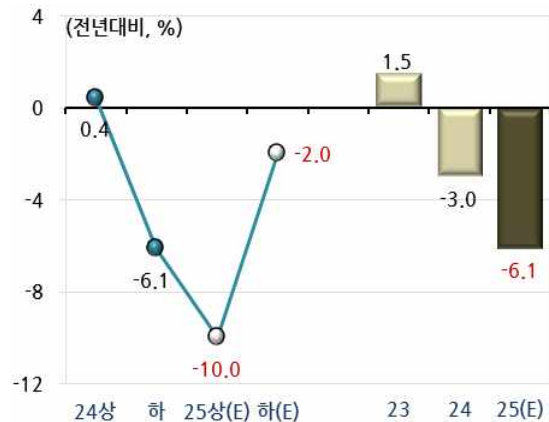
- 건설수주 침체의 장기화가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시장 여건이 다소 개선되면서 투자가 미약한 반등을 보일 것으로 기대
 - 부문별로 보면 토목 SOC 분야의 경우 '25년 정부 예산에서의 재정투자 규모가 25.4조 원으로 '24년 26.4조 원 대비 3.8% 감소함
 - 특히, 건설투자의 약 75%를 차지하는 건축·건물건설 분야의 경우, 공급 측면에서 고물가에 따른 공사비와 고금리로 인한 금융조달비용이 급등한 상황이고, 수요 측면에서도 경제적·제도적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
 - 나아가 건축·건물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향후 업황 불황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25년 건설투자증가율은 '24년 $\Delta 3.0\%$ 에 이어 역성장 $\Delta 6.1\%$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감소세를 지속할 것이나,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함

< 건축부문 허가 및 착공 면적 추이 >



자료: 국토교통부.

< 건설투자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한국은행).

③ 대외 거래

수출증가율	8.1%	⇒	△4.0%
	(2024)		(2025)

- 수출증가율은 '24년 8.1%에서 '25년 △4.0%의 감소세로 전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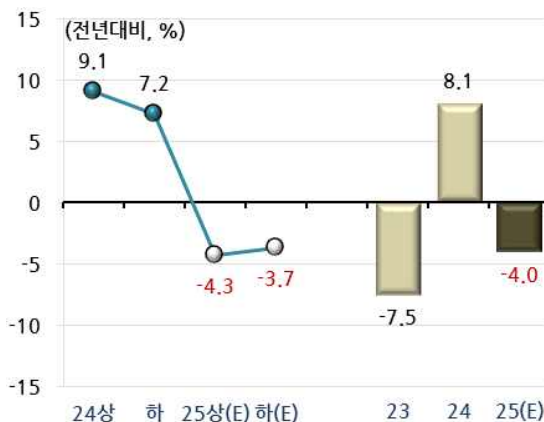
- 상·하반기별로도 연중 내내 감소세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며,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출 산업일수록 실적의 부침이 상대적으로 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 협상의 결과와 미·중 간 관세 전쟁의 향방에 따라, 하반기 수출 경기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수입증가율	△1.7%	⇒	△0.5%
	(2024)		(2025)

- 수입증가율은 '24년 △1.7%에서 '25년 △0.5%의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2.0%, 하반기 1.0%로 예상됨
- 내수 침체로 수입재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면서 상반기에는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 들어 다소의 경기 반등과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함

< 수출증가율 추이 및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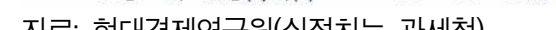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관세청).

< 수입증가율 추이 및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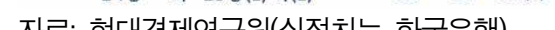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관세청).

600 INDEX



1,300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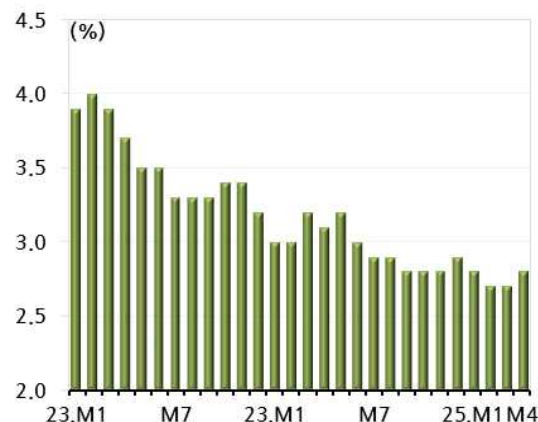


④ 물가 및 고용

소비자물가상승률	2.3%	⇒	1.7%
	(2024)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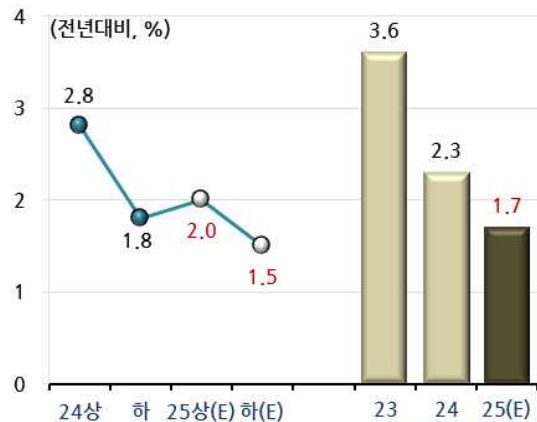
-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의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
 - 국제 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글로벌 시장 수요 하락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의 완화가 기대됨
 - 한편, 수입물가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인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0%대의 극심한 침체 국면이 이어지면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함
 - 다만, 주요 원자재 수출 지역에서의 전쟁, 수출 규제 확산 등의 예기치 못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4년 2.3%에서 '25년 1.7%로 낮아질 전망
 - '25년 상반기에는 2% 내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 들어 1%대의 물가상승률이 전망됨

< 기대인플레이션을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통계청).

실업률	2.8%	⇒	3.3%
	(2024)		(2025)

- 실업률은 '24년 2.8%에서 '25년 3.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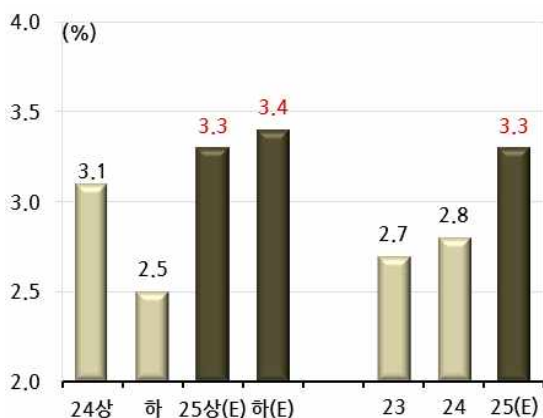
- 전반적인 경제 상황 침체의 영향으로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실업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불황 국면에서 기업들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구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층 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취업자수증감	16만명	⇒	15만명
	(2024)		(2025)

- 신규취업자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증감은 '24년 16만 명에서 '25년 15만 명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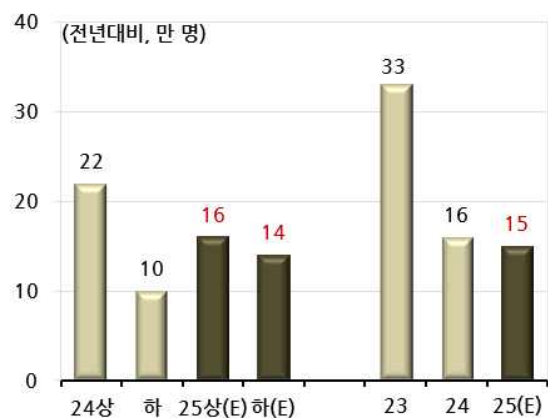
- 상·하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16만 명, 하반기에는 14만 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신규취업자수의 감소 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최근의 고용 시장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의 고임금자가 서비스업 내 저임금 업종으로 전환되면서 신규 일자리 숫자 자체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영향으로 판단됨

< 실업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통계청).

< 취업자수 증감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실적치는 통계청).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5년 한국 경제 전망표 (2025년 4월) >

구 분		2023	2024			2025(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1.4	2.8	1.3	2.0	0.4	0.9	0.7
	민간소비 (%)	1.8	1.0	1.3	1.1	0.6	1.2	0.9
	건설투자 (%)	1.5	0.4	△6.1	△3.0	△10.0	△2.0	△6.1
	설비투자 (%)	1.1	△1.8	5.1	1.6	4.0	△1.5	1.2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355	402	589	990	260	230	490
	무역수지 (억 달러)	△103	230	289	518	148	128	276
	수출증가율 (%)	△7.5	9.1	7.2	8.1	△4.3	△3.7	△4.0
	수입증가율 (%)	△12.1	△6.4	3.4	△1.7	△2.0	1.0	△0.5
소비자물가상승률 (%)		3.6	2.8	1.8	2.3	2.0	1.5	1.7
실업률 (%)		2.7	3.1	2.5	2.8	3.3	3.4	3.3
취업자수 증감 (만 명)		33	22	10	16	16	14	15

4. 시사점

첫째, 사상 네 번째의 성장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기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 만큼 민간 중심의 성장경로 재진입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성장 친화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함
 - 국내 실물경기는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경제 전반의 수요 압력이 약화되는 전형적인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더구나, 韓美 간 관세협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더라도 미국의 對 세계 관세정책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수 회복 시기도 불투명함
 - 따라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더불어 성장 친화적 경제정책 기조 유지로 내수 경기 회복에 집중하는 한편, 상황 악화 시 연내 추가적인 재정 지출 확대 조치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도 갖추어야 하는 상황임
 - 한편, 재정 여력 및 효율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SOC 분야에 대한 사업 조기 발주와 함께 가계 구매력 확충과 직결된 부문의 재정 집행 속도를 높여 내수 전반의 경기 침체 방어에 주력해야 함
 -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경제가 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단기 세수·세출 균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중기 세수·세출 균형을 위한 경제 및 재정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적 통화정책 완화)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로 경기부양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는 한편 물가 불안 등의 우려는 미시 대응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경제의 수요 압력 약화로 인플레이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가적 통화 완화가 물가 부담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따라서, 일시적 계절적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수급 대책을 확보해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 등 정책적 물가 불안 요인은 시기와 범위 조정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함

- 또, 추가적인 통화 완화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는 정책 일관성 확보를 통한 시장 기대심리 안정화,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활용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과 같은 미시 정책 대응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금융시장 급변동에 의한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가 내수 부진을 가속화하지 않도록 가격 변수의 변동성 완화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함
 - 환율, 주가, 금리 등 금융시장 가격 변수들은 실물 경제적 측면에서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심리적 측면에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력에 우회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외환 및 주식 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은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를 통해 소비나 투자에 악영향을 미쳐 내수 경기의 회복을 제약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시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 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일부 투기 자본의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 등의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글로벌 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금융기관이나 개인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무 및 금융 자산 투자 건전성 감독에 주력해야 함
 - 한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시장 간 의사소통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포워드 가이드(Forward Guidance)’와 실제 정책의사 결정 결과와의 간극을 좁힘으로써 정책당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건전한 기대를 형성해 급변동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둘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 양상 및 주요국과의 협상 프로세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국익 최대화를 위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통상전략 전반의 재점검 및 보완책 마련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및 수출 경쟁력 유지를 꾀해야 한다.

- (주요국 협상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책 모색)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관세뿐 아니라 안보(국방, 영토), 통화(환율), 첨단 기술 및 산업(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등) 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국과의 협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협상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과 호주, 인도, 일본 등 5개국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선정, ‘원칙적 합의’와 ‘구체화 실무작업’의 2단계로 무역 협상을 진행 중임
 - 이 가운데 일본의 경우, 주일미군주둔비와 환율 등이 비관세장벽과 함께 관세협상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美日 협상 과정에서 對美 협상전략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수출 전략의 재검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차별적 관세 부과, 우회 수출 제약 등 국내 기업이 지금까지 구축해 온 공급망으로부터의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도 큰 만큼 공급망 재편에서부터 수출 기지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수출 전략의 재검토도 필요함
-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 현지화 등을 통해 특정 공급망 또는 수출 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교역 환경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야 함
 - 이는 국내를 통한 타국 기업의 우회수출, 국내 기업의 타국 이용 우회수출 등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규제 대상이므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함
 - 인도, 아세안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 공략을 수출의 외연 확대, 점진적인 對中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중장기 수출 기반 안정화를 꾀해야 함
- 셋째, 정책 이니셔티브 발현을 통해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한 고용 및 소득 확충을 유도하는 한편, 이것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 (민간투자 기반 고용 및 소득 확충)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국내 건설시장의 조기 안정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한 고용 및 소득 확충 노력이 필요함
-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 등에 의한 해외투자 가속, 대내적으로는 고금리 등 고비용 리스크와 내수 여건 악화 등으로 민간투자 부진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음
 -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 노력 등 국내 투자 유인을 증대시키는 것이 긴요함

- 구체적으로는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노력 지속, 금융·세제상 지원 강화, 노사 관계 안정, 기업인의 사기 진작 정책 등 다각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
 - 또한, 의료나 교육 등은 물론 수출입 규제 등 외국인투자 관련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개선, 유턴기업이나 유망 신기술 및 신산업에 관한 지원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건설시장 조기 정상화)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 수준에서 국내 건설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확대 및 합리적인 PF 시장 관리, 실수요자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강화 등의 시장 정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넷째, 경기 침체기와 미래 불확실성 고조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적절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여 사회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가계 특성별 사회 안전망 차별화) 저소득 고령 1인 가구 등 가계 특성별 사회 안전망 차별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함
 -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나 금융 등의 부문에서의 사회 안전망의 경우에는 경기 회복세가 추세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 (업종별 영세 자영업자 지원 차별화)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경기 침체기 피해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 업종의 경우, 업종별 규모별 피해 정도가 제각각인 만큼 차별적 지원 대책이 필요함
 -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우선 제공) 청년층, 여성, 저소득층 등 고용 충격이 집중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하고, 공공일자리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꾀해야 함

다섯째,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경제·사회의 역동성 복원 노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 (정책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보) 정책 목표의 안정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새로운 정책일 경우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확대해석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집중) 단기 경기침체 극복은 물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 고리 형성이 매우 중요함
- (혁신 기반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자본시장의 산업 지원 기능 강화) 이를 위해서는 혁신 기반의 산업생태계 활성화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임금 및 고용 안정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어야 함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이부형	동향분석팀장	(2072-6306, leebuh@hri.co.kr)
이택근	연구위원	(2072-6266, tklee@hri.co.kr)
신지영	연구위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시연	연구위원	(2072-6248, syroh@hri.co.kr)